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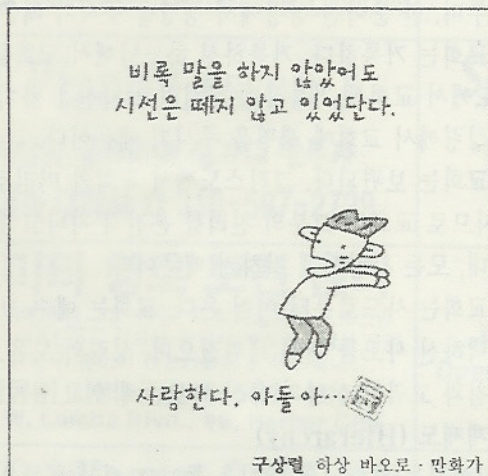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축일(성모 성월)
제28권 25호 (가해) 2008·5·18

[묵상]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그 옛날, 성금요일의 오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외치셨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날, 우리는
아버지가 정녕 아들을 버리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엔
아버지도 계셨고, 성령도 계셨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받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사랑과 자비의 살아계신 하느님!
본체로는 하나이시나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로다.
아멘.(人)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전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강현 요셉 박노현 요한, 배정순 엘리사벳, 심재순
	(생)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신동훈 마티아 홍 관
주 일 낮 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은완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김용팔 다두 정형두 바오로, 이강현 요셉, 이진오 스테파노 김경희, 정희용, 심재순
	(생) 이종민 요셉, 고천용과 체칠리아 가정 오화석과 이미나 헬레나, 이유진 대건 안드레아 송수산나, 정충로 안토니오와 숙경 카타리나 가정 홍운정 엘리사벳, 권영옥 루시아, 홍 관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4,4ㄱ-6.8-9

화답송 ○저희 조상들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스러운 당신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에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영광스러운 궁전에서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에 찬미 찬양 받으소서.

○당신 왕좌에서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에 찬미 찬양 받으소서.

○케루빔 위에 좌정하시고, 심연을 굽어보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에 찬미 찬양 받으소서.

○드높은 창공에서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에 찬미 찬양 받으소서.

제 2독서 코린도 2서(Corinthians) 13,11-13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복 음 요한(John) 3,16-18

영성체송 진정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 안에 보내셨도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시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5	105
봉헌	400	197,267
성체	283	301,299
파견	실로암	326

12.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계속)

▶ 교회의 특성

교회는 다음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네 가지 특성
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
거나 소홀히 여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교회일 수 없다.

- 첫째,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하나의
몸을 이루며, 한 분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 둘째,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으며, 거
룩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 안에
현존하시므로 교회는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지니고 있고, 이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 넷째,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 위에 세워졌으며,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
의 가르침과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 교제제도 (Hierarchy)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
시려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를 마련하셨고, 당신의 몸을 이루
는 각 지체들에게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교회의 신
분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고(예언직
분) 거룩하게 하며(사제직분) 다스리는 임무(봉사직분)를 맡기
신 성직자와, 교회와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수행
하는 평신도가 있다. 성직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 주교의 협조자인 신부와 부제로 구별
된다. 부제직분에는 사제품을 준비하는 부제와 종신토록 부제
직분을 수행하는 종신부제직이 있다.

우리 가톨릭교회의 교제제도는 우선 피라미드 모양의 수직
구조의 형태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원형 모양의 평면구조로 되
어 있다. 원형의 한 가운데 지상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이
있고, 그 둘레에 교황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 추기경단, 그리
고 대주교단, 주교단이 차례로 자리 한다. 큰 원형을 세로로 2등
분하여 탈속(脫俗)과 세속(世俗)적 직분으로 구분하고, 다시 가
로로 2등분하여 성직자와 평신도의 직분으로 구분한다. 탈속
(脫俗)적 직분에는 수도자가 있으며, 성직 수도자와 평신도 수
도자로 구분한다. 수도자는 복음의 권고(청빈, 정결, 순명)를 서
원함으로써 하느님께 봉헌되어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이다. 세속(世俗)적 직분에는 교구소속 성직자와 본당소속
평신도의 직분이 있으니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각기 고유한
직분을 수행한다.

오늘날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고
유한 방법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사도직으로 복음선포와 성화
(聖化)와 봉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CBCK 제공 / 계속)

삼위일체 하느님과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6-27).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항상 자신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1독서에서 모세가 하느님에게 청하듯,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느님, 그분은 사랑이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1요한 4,8).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은 우리 역시 사랑하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랑으로 가득 찬 이는 하느님으로 가득 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시편 상해 98,4). 이러한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4항).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1요한 4,9 참조). 또한 성령의 파견을 통해 사도 바오로가 고백하듯,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로마 8,15-16).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 살도록, 즉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총, 성령의 친교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빛 안에서, 복되신 삼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있다"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65항). 결국 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입니다(2코린 13,11). 모든 이가 삼위일체의 부분을 형성하도록 성부·성자·성령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 신앙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성호경을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이 고백은 진정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 이끌어 줍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찬미와 영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와 힘을 갖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삼의 복자 엘리사벳과 함께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흠송하는 나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제가 제 자신을 온전히 잇도록 도와 주십시오. 마치 제 영혼이 이미 영원 안에 머무는 것처럼 당신 안에 자리하도록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제가 느끼는 평화를 깨트리거나 당신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 매순간 당신 신비의 심연에 보다 더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제 영혼을 평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하늘이, 당신이 사랑하는 거주지가, 그리고 당신이 쉬시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변종찬 마테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숙 클라라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래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자	문재원 클로틸다	황지영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4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월 예수성심 대축일 미사 : 30일(금) 오전 8시30분
성모 성월 성모의 밤 : 31일(토) 오후 8시, 성전

- ◆ 본당 신부님 북미주 사제협의회 피정 및 총회 참석
은혜로운 피정과 회의가 되도록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평일미사(수,목,금)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일정 : 5월19일(월)~23일(금)
뉴욕 Mount Manresa Retreat House
- ◆ 양업회 춘계 야유회
● 일시 : 5월26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웨스턴 바닷가(약도 사무실에 비치)
● 회비 : 가족당 \$20(준비물 : 따뜻한 옷)
● 연락처 : 양업회 총무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한국학교 임시 휴강
본당 체육대회와 Memorial Day 연휴로 **5월18일과 25일** 주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시작합니다.
● 등록기간 : 6월1일~8일(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아이 부터는 무료(자모회비 : 한 가정당 \$20)

- ◆ 어르신 교우들을 위한 **장수 사진 촬영 무료봉사**
사목회 홍보분과 이진행 힐라리오 형제가 활동하는 재미사 진 동호회 '사진 러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교우를 위한 장수(영정)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 일시 : 5월25일(주일) 오전 11시~오후 1시30분
● 장소 : 강당 ● 문의 : 이진행 힐라리오 714-290-4807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오늘 주일(18일) 10시 미사후 축구장과 친교장에서 진행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진행 : 대견회, 청년회 ● 주심 : 이재정 요한
▶ 11:30 : 개회식
▶ 12:00~12:30 : 피구 게임
▶ 12:30~13:30 : 중식(소공동체별)
▶ 13:30~17:15 : 청,백 합동 응원전, 릴레이경주, 축구, 오자미 던지기, 물풍선 나르기, 짹짹기, 줄다리기 등 게임 진행
▶ 17:15 ~18:00 : 폐회식(성적발표), 주변정리
- 청팀 : 토런스 동,서,북구역
● 백팀 :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목요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5월29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중
- 대부/모님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3일(화)~6월8일(주일)
오후 7시~10시(주일은 오후 2시~6시)
- 지도 : 방부역 요한 신부님(사도 성요한 수도회)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성령기도회장 ☎ 310-569-3940

◆ 빈첸시오회에서 안쓰는 묵주 등 성물을 수거합니다.

- 각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묵주나 성물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남미에서 선교하는 한국 수도원에 보내드립니다.
- 수집함 : 사무실에 비치
- 문 의 : 이안셀모 ☎ 310-908-8823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18일(주일) : 백삼위 한마당 체육대회
- 5월25일(주일) : 하버/카슨 1,2반(콩나물·무·고기국 \$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교복	김병철	김상억	김선희	김양금
	김영미	김원모	김윤진	김종환	김충섭	남명자
	노혜숙	민소예	박동수	박인식	박정희	박진수
	박희자	배태임	송호창	신대철	오세원	오영섭
	오진희	오현희	유근우	유희연	윤석구	유희동
	이관웅	이근태	이기성	이상규	이석호	이은록
	이인석	이일길	이일형	이재용	임현기	장수창
	정동호	정상봉	정지숙	정훈모	조영희	주대중
	지경수	차인수	최미열	최수복	최태훈	홍숙자
	홍윤정	한길선례				
합계 : \$5,735						

미사헌금 : \$3,354.10

성전헌금	김교복	김양금	김영미	김원모	김윤진	김종환
	김충섭	남명자	노혜숙	민소예	박동수	박인식
	박정희	박진수	박희자	송호창	오세원	오영섭
	오현희	유근우	유희연	이근태	이기성	이상규
	이석호	이은록	이인석	이일형	이재용	임현기
	장수창	정동호	정상봉	정훈모	조영희	주대중
	지경수	차인수	최미열	홍숙자	한길선례	
합계 : \$4,035						

❊ 축하합니다 ❊

- 18일 : 요한 1세 교황 순교자, 베난시오 순교자, 예릭 왕 순교자, 펠릭스 증거자, 데쿠사 순교자, 파이나 순교자, 엘지바 수절, 율리아 순교자
- 19일 : 켈레스티노 5세 교황, 이보 사제 증거자, 던스탄 주교, 프텐시 아나 동정녀, 치리아카 동정 순교자
- 20일 : 베르나르디노 사제 증거자, 보텔리오 순교자, 바실라 동정 순교자, 힐라리오 주교
- 21일 : 고드릭 은수자, 테오필로 증거자, 이스베리카 동정녀, 테오발도 주교
- 22일 : 카스토 순교자, 에밀리오 순교자, 로마노 원장, 리타 수절, 율리아 동정 순교자, 헬레나 동정 순교자, 귀데리아 동정 순교자, 후밀리티스 동정녀
- 23일 : 이보 주교, 요한 증거자, 테시데리오 주교 순교자, 에우프로시나 동정 순교자
- 24일 : 빈첸시오 사제 증거자, 도나시아노 순교자, 로가시아노 순교자, 요안나 수절, 수산나 순교자, 소피아 동정녀

남가주 소식

❖ 성체 신심 세미나

- 일시 : 5월20일(화) ~ 26일(월) 오후 7시 30분~ 밤 10시까지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강사 : 채창락 요셉신부(대구교구 산적 성당 주임)
- 참가비 : \$30
- 문의 : 박성관 아오스딩 ☎ 310-894-1009

❖ 미주 재속 가르멜회 성소 안내

재속 가르멜 회원들은 복음적 완덕의 삶을 살고자 가난, 청빈, 순명의 서약을 함으로써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회원이 되고, 수도원 안에 있는 수도자들과 똑같은 가르멜 영성(관상과 사랑, 사도직)을 세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자격 :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 견진성사를 받은 55세 이하로 법적, 지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신자
- 성소식별 청원자 교육 : 6,7,8월 월모임 통해 교육
- 모임 : 매월 둘째 주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521 N. Euclid St. La Habra, CA 90631
- 문의 : 유철희 바오로 ☎ 310-320-3697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Summer Camp 피정

- 일시 : 6월26(목)~29(주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오전 11시30분부터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5/16(금) 오후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소화 대례사 533-9312 5/7(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장수창 요한 486-1982 5/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김희복 아네스 326-2283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5/18(주일) 낮미사 후 성당

삼위일체 하느님과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를 마감하고 다시 연중시기로 접어들면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낸다. 이는 하느님께서 본체로서는 한 분이시나 위격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라는 신비를 밝히는 동시에, 세상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세상의 성화를 주관하시는 성삼 하느님 업적의 종합적인 축일이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화답송의 응송처럼 '주님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낼 적마다 함께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다.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정립에 앞서 양자설(養子說; Adoptionism)이나 성자성부예속설(隸屬說; Subordinationism) 같은 이단을 파문해야만 했던 아픔과, 성령의 출처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ex patre filioque"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를 주장한 서방교회와 '성부만으로부터'를 주장한 동방교회가 서로 갈라서야 했던 아픔들이다. 뿐만 아니라 "신은 죽었다."고 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고 했던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신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철학적 논리라기보다는 '신의 부재(不在)'를 체험한 처절한 인간실존의 한 모습이 가져다 준 결론이란 점이다.

지난날 코소보 난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나토 연합군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의 원인이 따지고 보면 같은 하느님을 믿는 코소보의 이슬람교인과 유고슬라비아의 정교도와와의 대립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공습을 주도했던 나토 가입국들 대부분이 또한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인들이라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오늘날 아직도 분쟁지역인 이스라엘을 둘러싼 유대인과 아랍인과의 대립도 결국은 종교가 그 불씨다. 인권을 위한 국제적 질서확립이라는 미명아래, 수천 년이 지나도록 수그러지지 않는 이사악에 대한 이스마엘의 적대감 때문에 종교도 하느님도 결국은 뒤흔들어져 버린 것이다.

신학의 역사는 인간이 하느님의 신비를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의 연속이다. 수많은 철학적 개념들과 형이상학적 명제들이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지만, 하느님은 결국 신비 자체로 계신다. 본체(本體)는 하나인데 위격(位格)이 셋이라는 말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듣기 힘든 것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물며 우주보다 더 크고 깊으신 하느님의 속을 어찌 알겠는가?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이성과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와 표현 안에 머무를 뿐이다. 하느님이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 포착되는 순간, 하느님은 그 안에 갇히게 되므로 그는 이미 하느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세 위격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서 본체로서는 하나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이다. 즉, 사랑에 의한 일치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나 권력 등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일치와 협력이다. 부와 모와 자녀가 서로 일치해야만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노(勞)·사(使)·정(政)이 서로 협력해야만 안정된 사회와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지(知)·덕(德)·체(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참되고 진정한 사람일 수 있다.

오늘날 20억 이상의 인구가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라지만 그 가운데는 세상의 온갖 악을 그저 방관하는 하느님, 구름 위에서 침묵으로만 내려다보는 하느님을 믿는 신자도 있고, 또 그 때문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불신하고 존재마저 부정하는 신자들도 많을 것이다. 오늘 삼위일체 하느님을 경축하는 교회는 하느님이 우리들 세상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선포해야 한다. 그것도 교의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 주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고"(요한 3,16),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함께 하는 살아 계신 하느님이심을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이 되어 고통 받으신 것이 수치도 어리석음도 아닌 우리만의 지혜요 자랑(1코린 1,22-31; 갈라 6,14 참조)이 되도록 살아야 할 것이다.

◆(박상대 마르코 신부)